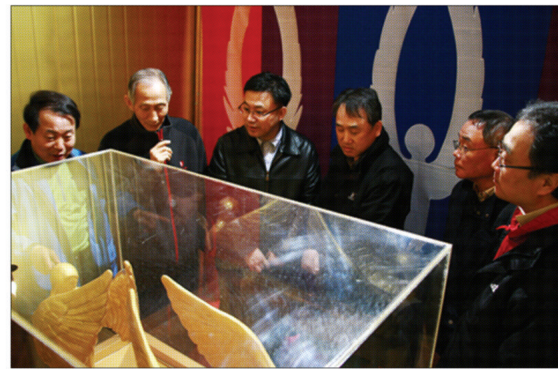


안수집사회 성막체험과 산상기도회



지난 4월 17일 안수집사회에서 산상 수련회를 가평 송동 기도원에서 성막 체험과 온길산 산행을 했습니다. 성막 체험과 온길산 산행을 하며 우리는 세상을 살며 여행 중에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어떤 길을 가면서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여행의 길이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잠시 머무는 집이 영원한 듯 우기는 것도 조금은



어리석은 일이 아닌지, 살아가며 정성만 생각하지 말고 가는 길에 의미를 두어야 할 것 같은 생각도 하였습니다. 가는 도중에 만난 모든 사람과 함께 어울려 가면 그 길이 외롭지도 않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렇게 가면 좋으련만, 나그네 임에도 내가 주인인 듯한 행세로 살고 있으며 욕심으로

얼룩진 못난 착각을 하며, 인생의 산을 올라가면서도 올라간다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내려오는 길에 마음을 비우고 여유를 가지니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세상 이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자람을 채워기 보단 있음에서 비움을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 자신을 채워가는 자리보다는 자신을 비워가는 자리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들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성과 이성 잘 조화되어 교회에서 말은 각 사역 사역 잘 감당하며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힘든 일 있더라도 묵묵히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며 나라를 위해, 가정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주님의 교회 이끌어 나갈 기동되게 하여 주시옵고 한분 한분의 뜻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많은 좋은 사역들 봉사하는 일마다 주님이 기뻐하심에 즐거움이 넘치도록 기도드립니다. (신형섭 기자)

어울림 - 6-21 겨자씨 서울역 노숙자 점심 배식을 나누며

제가 참 좋아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어.울.림' 오늘따라 유난히 더 반짝여 보입니다.오늘은 많은 비 내리는 서울역에서 노숙자들 배식을 하였습니다. 100년만이라는 4월 속의 겨울,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 놈의 비... 노숙자들 밥 편히 먹게 이 시간 만큼은 비 오지 말지 하며... 원망이 아닌 원망도 하였지만 그래도 즐겁게 준비하고 맛있게 먹는 모습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 비를 맞아가며 봉사하시는 분들... 오늘 배식을 준비한 교회에서는 맛있는 떡볶이를 해주셨네요. 비가 오니 식사하시는 분들 더 많습니다. 밥을 나누며 식판에 빗물 안 떨어지게 옆 사람 우산 같이 쓰며 "맛있게 드세요." 하며 식판을 드리면 "고마워요, 잘 먹었어요." 하는 한마디... 그들은 깨진 물항아리가 아닌 그 흘러진 물로 꽃을 피우는 길 잃은 양 같네요. 연약한 삶 이겨나가시고 잃었던 길 바로 찾는 길 찾는 양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히 걸어도 빨리 달려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한 세상인 것을 더러는 조금 살다가 더러는 오래 살다가 우리는 가야할 곳으로 떠나가는 것을 소중한 시간에 사랑하며, 이해하며 살아가야 할텐데... 그들의 연약한 상처 어루만져주고 자신들 귀한 존재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6-21겨자씨들은 매주 수요일 서울역에서 서울역광장

교회 '신생교회' 노숙자 배식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4월 28일 수요예배에서는 우동운 목사님이 '이미 주었다'는 말씀으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모처럼 만나는 목사님 얼마나 반가웠는지 앞으로 은혜로운 목회를 위한 귀한 사역에 기도드립니다. <6-21 겨자씨 김창석 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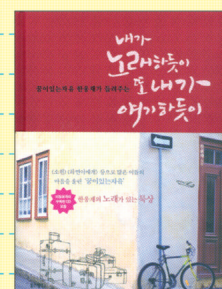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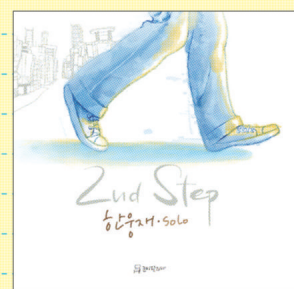


주님의교회 국수 자랑



저희 교회 국수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맛있고 그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양을 어떻게 만드나 하고 다른 교회에서 주

일에 저희 교회에 탐방을 오기도 합니다. 우리네 살아가는 세상 속에 내용, 바로 그 맛이 이 국수에 담겨있습니다. 국수를 먹으며 가끔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의 고마움과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국수를 먹는 시간은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일마다 한 그릇씩 먹는 국수로 엔돌핀이 팍팍 솟아나는 것만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끊임없이 소유하려는 욕심 때문에 행복의 빛을 잃어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눔과 나눔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겠지요. 욕심없는 마음 나눔의 미학과 국수 한 그릇의 공동체에서 느끼는 교우들의 영혼은 그야말로 우리들의 엔돌핀 제조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주일에 먹는 500원의 국수로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먹는 국수는 정말 은혜의 국수인 것 같습니다. (편집부)



春來不似春(봄은 왔는데 봄이 온 것 같지 않다) 올해처럼 이 오래된 시의 구절이 마음 깊이 와 닿는 때가 있었을까요? 들쭉날쭉한 날씨와 우리 가운데 일어난 엄청난 큰 사건이 가져다 준 슬픔 때문인지 이 봄이 봄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역시도 다른 어떤 때보다도 이 코너에서 소개해 드릴 책과 음반을 찾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기도와 고민이 거듭되고, 주변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다시 한번 좋은 음반과 책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코너를 처음 쓸 때 소개해 드렸던 '꿈이있는자유의 한용재목사님의 솔로 앨범 (2nd Step)과 한목사님이 쓰신 노래가 있는 목상집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가 그것입니다. 책을 읽으면 음악이 더 잘 들리고, 음악을 들으니 글이 더 잘 이해됩니다.

《2nd Step》에 실린 노래들을 통해 우리는 베드로, 사개오, 돌아온 탕자, 새벽기도가시는 어머니, 영화전에 묻힌 이름 모를 선교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얘기가 바로 우리들 자신의 이야기라는 깊은 공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용재목사님의 노래의 이유와 목적지는 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노래 한국 한곡이 허공에 울리지 않고 마음 속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여기에 실린 노래들을 통해 우리들 역시 같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책(내가 노래하듯이...)에서는 신실하고 진지한 구도자의 시선으로 본 가족과 이웃과 신앙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작고 사소하여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것들까지도 놓치지 않는 그 통찰이 빛나며, 목상이 깊고도 따스하게 전해지는 아주 예쁜 책입니다. 책을 통해 목사님 가족의 어려웠던 과거와 음악하는 사람에겐 더욱 큰 타격인 오른쪽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힘든 시간들과 슬픔이 원망으로 머물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협력해서 선을 이룰 때, 다른 이들의 아픔과 슬픔을 풀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따뜻한 노래와 글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한용재목사님의 음반(2nd Step)과 책(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를 통해 봄을 잃어버린 우리들 마음에 봄이 되찾아지면 좋겠습니다. (박윤정 기자)

[오늘의 말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_엡 6:2-3

동 권 제 263호

발행처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2010년 5월 2일

함글함글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회개의기도

사랑하는 주님, 구하옵나니 내 일생에 걸쳐서, 은혜 중의 은혜인 회개를 제게 주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의 영을 제게 보내셔서 제 자신을 주님의 빛에 비취 깊은 죄악을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제 언행심사의 척도가 되게 저를 도와 주소서. 더 이상 제 자신의 값싼 자로 죄를 가늠하지 말게 하소서. 저를 성경 말씀의 척도가 되게 칭찬 동여매어 주님이 저를 보시는 것처럼 제가 저 자신을 보게 하소서. 곧 제가 저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을때 주님이 저를 심판하시는 것처럼 제 자신이 통회하게 하소서. 제게 일어나는 모든일 가운데서 특히 주님의 채찍 가운데서 깨닫게 하소서. 회개하라는 사랑에 찬 주님의 훈계를 깨닫게 하소서. 구하노니 스스로 옳다하여 만족해 하는 마음이 아니라 상한 마음을, 곧 마음의 죄악을 두고 항상 슬퍼할 줄 알고 당신의 용서에 즐거워 할 줄 아는 마음을 제게 주옵소서. 주님께서 꼭 제 기도를 들어주시길 알고 제가 감사해 하는 것은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두고 당신은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저희가 눈물로써 회개할 것을 원하십니다. 제 자신의 회개 할 줄 모르는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 딱딱한 마음이 녹아 제가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에게 행한 죄악을 두고 슬퍼할 때까지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계속하게 하소서. 제 옛 성질을 제 경화된 마음을 자비롭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한 제 마음을, 남에 대한 험담을, 제 시기과 질투를, 제 불성실함을, 이 세상의 인간과 물질에 기대보려는 제 자신을 두고 슬퍼할 줄 아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 주님, 당신은 제게 부족했던 곧 회개를 아직까지도 요구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용서 받은 죄인의 즐거운 생활을 통해 이 지상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게 하소서. 그렇게 될 때 저는 영광중에 주님과 함께 어린양의 결혼잔치에 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회개』에서, 바실레아울링크 지음>



_ 그림 홍영주 집사 8호F(38cm x 45.5cm)오일페인팅

오! 아닙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엎드려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이맘때였습니다. 벚꽃이 활짝 피고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개화의 즐거움과 새로운 시작의 징조에 모두 기뻐했습니다.

자연은 아름답고 사업은 발전하고 인생은 즐거웠습니다. 과학기술의 혜택을 만끽하며 디지털 카메라와 캠코더는 저희의 기쁨과 경제적 불황에서 회복된 자의 미래와 희망과 자신의 건강을 확인하고 감사하기 위해 자신들을 꽃잎 속에 숨겨서 기록하는 소망을 성실히 수행했

습니다.

첨단 과학기술의 정화이었던 인공지능을 우주를 향해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으로 인한 탄성과 성공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며 인간이라는 존재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희에

당신을 2010 어린이 무지개잔치로 초대합니다.

연재: 5월 5일 수 어린이날 10:00~16:00

어디: 정진여중고 운동장 및 대강당, 주변

누구: 모든 어린이와 학부모

오 하나님 / 회개의기도 1-2면

외국인 비전센터 / 장애인의 날 3면

안수집사회 / 어울림 / 국수자랑 외 4면

*우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게 삼베인을 완전히 터뜨리지는 못하게 했습니다. 하늘은 인공위성을 완전하게 품어주지 않았습니다.

오 하나님!
저희는 그때부터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과학기술의 배출물인 CO2는 대기 중에 쌓이고 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은 바르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가장 위대하며 과학문명만을 신뢰하는 저희들은 교만하고 무지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평범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세계에 순응하며 살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구촌 생명체는 빙하가 녹다며 모두들 걱정했습니다. 태평양의 투발루라는 작은 섬나라는 점점 불어나는 바닷물에 눈물을 흘리고 중국과 동남아에서는 자연재해 때문에 자식을 가슴속에 묻은 부모는 절규하며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이티에서 일어난 지진은 가진 자는 가족과 집을 반석처럼 여기게 하고 빈민들은 집을 잃고 비통해하며 119 구원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 나라의 정치지도자는 위기를 대처할 방법을 몰랐고 많은 나라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안전에 뿌듯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러한 괴로움이 내 나라가 아니고 내 가족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오 하나님!
서해바다에서 저희 아들의 배가 갈라졌습니다. 대통령은 신속하게 구조를 지시하였고 모두가 생존될 것을 기대하고 기쁜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가고 이들이 가도 기쁜 소식이 없었습니다. 46명의 젊은 영혼들은 캄캄한 전함 속에서 산소가 부족하여 생명이 끝나갈 때에도 첨단 과학기술로 특별한 구조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왜냐면 이곳은 아이티가 아니라 첨단 과학이 살아 있는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자연에 비해 과학기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조용히 소멸되어 갔습니다. 그들을 구조하라고 내보낸 현대판 머구리는, 한 가족의 평범한 아빠를 바다 속에서 익사하게 하였고 평화로운 어부는 바다 속에 매몰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저희들의 무능함을 탓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오오 하나님!
없드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타인의 재앙을 틈타 자신의 이익을 추적하고 자신의 영원한 생존만을 추구했습니다.
저희들은 비단옷과 기름진 음식에 탐닉하고 자신의 건재함에 화려한 제스처를 보내고 최고의 품격과 권위를 뽐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방탕함과 메스꺼움과 토함과 배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 저희들은 앞구정에서 사랑과 자비와 봉사와 감사함

을 말하면서 뒷구정에서 위선의 탈을 쓰고 시기와 허세와 탐욕과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권력의 지시가 있으면 죽었던 사람도 돌아오고 무서운 바다도 잔잔할 것이라 믿고 있는 바보입니다. 설마 첨단과학으로 무장한 현대문명이 잘못된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현실을 직시했을 때, 저희들의 사랑하는 가족이었고 저희들의 법과 도덕과 질서를 지키려던 46명의 사랑스런 그들은 다시 오지 못하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21살의 학교를 갓 졸업한 우리의 아들이었고 세상의 욕망과 유리된, 오직 바다에서 육지의 불빛만을 바라보고 반짝이는 불빛 안에 살고 있는 자식과 아내와 아버지와 어머니와 친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거친 발과 고독함을 견뎌 살아가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지 못했고 기름진 음식도 먹지 못했고 싱싱한 야채도 먹지 못했고 허세도 부리지 못했고 오직 사랑과 순종만을 미력으로 생각하며 불빛만을 바라보며 사는 수호자들이었습니다.

오 아남니다, 하나님!
오늘이 4월/말인데도 아직도 출습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꽃은 피지 못하고 핀 꽃은 열매를 품지 못했습니다. 꽃이 피어도 향기를 품지 못하고 지속적인 주위는 꽃들이 지쳐 더 이상 생존의 의지를 상실해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없드려 지은 죄를 낱알이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인간이 아무리 발달시켰다고 자랑하는 과학기술도 결국은 서해바다 파도하나 잔잔하게 할 수 없는 무능한 우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좌우하는 전능자가 아니라 결국 아일랜드에서 화산이 폭발했다고 해서 하늘을 마음대로 날지 못하는 무쇠로 만든 쇠덩이, 비행기 그 자체이었습니다.
저희들의 자존심인 첨단과학은 우리의 아들 46명의 순순한 생명이 구해될 때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싸늘한 주검이 되었을 때는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거대한 굴러왔이 위용을 자랑하며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은 바르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가장 위대하며 과학문명만을 신뢰하는 저희들은 교만하고 무지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평범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세계에 순응하며 살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 이제 집을 나간 탕자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합니다. 저희들을 종으로라도 쓰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0. 5월 2일 편집장 하태원)

로 템 나 무



| 시 소 놀 이 |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오.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시113:5-6)

아이가 어릴 적에는
놀이터에서 함께 놀아주었다.

특히 시소놀이를 할 때는
아이의 맞은편에 앉았다.

아이보다 훨씬 무거운 나는
아이 보다 앞으로 다가 앉았다.

그래야 시소가 균형 있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맞은편에 앉아 계신다.

어떤 경우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내게 맞추기 위해 스스로 낮추시면서.

주님!
저의 자리로 올라오라고
고집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의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아멘.

〈엄혜숙 기자〉

외국인 비전센터를 찾아서

지난주일 (25일) 2부 예배후 '주한외국인 선교팀(팀장 최윤철집사)'을 따라 하남시에 있는 외국인 비전센터를 찾았다. 외국인 비전센터는 2000년에 처음 사역을 시작하여 올해로 10년이 넘는다. 외국인 비전센터는 다문화가족과 이주노동자를 돌보는 사업을 주로 한다. 이 센터의 두드러진 특징은 본교회가 교회건물을 정신학원과 같이 효율적으로 사용함과 같이 선교 사업은 비전센터 선교사들이 진행하고 지원은 자원봉사자와 주님의 교회와 같은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선교회에 도착했을 때에는, 네 곳에서 부산하게 하나님 선교 사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맨 먼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주일학교는 (본 교회 송빛나 주일학교 교사파송) 어린이들이 비디오를 보면서 성경을 공부하

고 있었다. 다문화가족이지만 외모에는 드러나는 모습은 다름이 없고 이름 역시 한국의 '영철'이었는데 그들이 학교에 가면 한국인 부모들이 다문화가족인 것을 알게 되면 격리한다는 소리를 듣고 천사같은 동심에 상처의 양금이 생기는 것에 대해 마음이 아팠다. 이어서 다른 방을 가보았다. 캄보디아노동자들이 성경을 읽고 있었다. 뜻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성경말씀이라 분위기의 경건함이 느껴졌다. 그 옆방에는 한국어를 배우는 젊은 어머니들을 보았다. 오늘 한국어 자격증시험보는 날이라 두 세명의 어머니학생 밖에 없었다. 살짝 엿보았는데 공부하는 모습이 어린 시절 침을 발라 한글을 쓰는 모습과 너무 똑같이 빙그레 웃음이 절로 나왔다. 마지막 방에는 주방으로 오늘 선교센터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접대하는 곳이었고 오늘은 특별히 캄보

디아 명절이어서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 서로 기쁨을 나누는다고 하는데 이들을 봉사하는 사람은 센터의 선교사 부인과 딸이었다.

윤대진 선교사는 "주님의 교회가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면 자신들은 선교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선교사업의 목적은 "한국에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자격 있는 선교사를 양성하여 본국의 선교사로 파견하는 것"이 목표이라면서 주님의 교회 성도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다.

후원계좌

(국민 169001-04-065051 오펜환 외국인비전센터)



장애인의 달 행사 이모저모

지난 주일 3부 예배때 장애인의 달을 맞아

장애인 교우들의 찬양특송이 있었다.

발달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들이 모여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 모습은

그 모습이 은혜스럽고 하나님 나라의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함께 한다는 사실에 감동적이었다.

예배후 장애인부서에서는 각 분야별로

장애인들에 맞는 행사를 진행했다.

발달장애인들은 자원봉사자 집사님, 교사들과

함께 야유회에 갔고,

청각장애인들은 전도행사를 가졌다.

